

영산강 살리기 이슈 점검

2 죽산보 건설사업

“퇴적물 방류 수질개선” “수위 높아져 침수피해”

4일 나주시 다시면 영산강 살리기 2공구 죽산보 건설현장. 굴착기는 평을 내며 폭 200m에 이르는 강 바닥을 돌아다니며 흙과 자갈을 퍼내고 있었고 덤프트럭은 흙을 나르면서 공사장 주변을 싹새없이 움직였다. 우기(雨季)를 앞두고 조금이라도 공정률을 높이려는 듯 인부들의 망치질 소리도 끊임없이 쏟아졌다. 영산강살리기 2공구 사업 감리단 김선규 단장은 “지난 2월 물막이 공사를 끝내 공정률이 19%에 이르는 등 당초 계획(10%)보다 빠르지만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 최대한 공정률을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파악한 현재 영산강 2공구 죽산보 공정률은 19%. 올해 준설작업을 마무리하는 등 집중 공사를 시행, 핵심공정의 60% 수준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주기적으로 보 가동 물길 흐름 방해 않고 배수로·펌프장 완벽 생태계 변화 없어

영산강 살리기 죽산보(泐) 건설은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찬·반 논쟁의 핵심 쟁점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강바닥에서 토사를 퍼낸 뒤 물길을 막는 소규모 뚝을 건설, 물을 가두기까지 하다보니 수질·홍수·주변 생태계 문제 등에서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홍수 예방과 수질 개선, 생태계 복원 등이 가능하다고 예상하는 반면, 수질 오염 및 홍수 피해가 가중될 우려가 크고 주변을 높지대로 바꾸는 등 생태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반론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그나마 보 건설 현장 주변 농경지가 갑자기 억류한 물에 잠겨 30ha가 침수 피해를 입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갈수록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침수 피해 가능성은? =환경단체와 대한하천학회 등은 영산강 죽산보가 설치될 경우 주변 농경지의 대규모 침수사태를 불러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대한하천학회가 내놓은 ‘죽산보와 승촌보 설치 후 인근 지역에 발생하는 지하수위의 영향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죽산보가 설치되면 하천수위가 상승, 인근 농경지 등 4.51km(136만평)가 침수 피해를 볼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가 죽산보를 건설한 뒤 물을 가둬 유지하는 관리수위(해발 3.5m)가 주변 농경지(해발 2.5m)보다 높아 인근 지하수 수위를 상승시키고 결국 대규모 농지 침수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

이 보고서는 승촌보의 경우 5.10km(154만평)의 인근 농경지 등에 침수피해를 내는 것으로 예측했다. 이같은 점을 근거로 보가 예정대로 완공될 경우 영산강 유역 침수피해가 현실화되면서 지역민들의 주거환경을 위협하게 된다는 것이 환경단체와 영산강 죽산보 사업을 반대하는 진영의 주장이다.

정부 전망은 완전히 다르다. 정부는 20곳이 넘

죽산보 건설 현황

공사명	영산강 살리기 2공구(다시지구) 사업
사업목적	이수·취수 능력이 증대된 안전한 하천 조성 용수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비	1,477억원
시공사	삼성중공업(주)외 8개사
사업내용	죽산보 길이:184m 소수력발전소, 하천환경정비 설비 생태공원·생태습지 조성 등

는 지점에서 시추 조사를 실시한 뒤 공구대의 정밀 용역을 거친 결과물을 근거로 내세우며 환경단체나 일부 학계의 주장과 달리 침수 피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오히려 반대 진영의 침수 피해 근거 데이터가 잘못됐다는 반박도 내놓고 있다.

국토해양부 산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영산강 살리기 2공구 사업단측은 “죽산보 인근 농경지의 지반이 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점토퇴적층 및 점토층으로 이뤄진데다, 설명 보 완공으로 인근 농경지 지하수위가 상승하더라도 지표면까지 도달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침수 피해는 커녕 주변 지역이 높지대로 변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또 대한하천학회의 발표 자료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해당 지역의 세부 지형을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새로 마련되는 배수 체계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잘못된 수치 등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영산강 살리기 2공구 사업단측은 “정밀한 주변 조사를 거쳐 사업을 착공했으며 배수로 개설 및 배수펌프장 설치 등의 배수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민 및 농경지 피해가 없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질은 나빠지나? =수질 논쟁도 찬·반 공방이 치열하다. 환경단체 등은 죽산보를 세우면 흐



름이 정체되면서 수질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현재 4급수인 물이 2급수 수준으로 정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환경단체 등은 현재 영산강 수질이 좋지 않은데 보를 세우고 물을 가두면 흐름이 느려질 수밖에 없어 자정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결국 수질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정부의 보 건설을 통한 수질 개선 효과를 믿기 힘들다는 반론이다.

정부는 그러나 죽산보를 가동하지 않을 때에는 옛 물길을 활용해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유지할 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보를 가동해 퇴적물을 방류하기 때문에 수질 개선 효과가 크다고 반박한다. 여기에 하천 주변 농경지 정비 및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 차단도 수질 개선에 한몫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또 죽산보 건설을 위한 260만㎡ 규모의 준설 과정에서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해 하류에 수질자동측정시스템을 설치, 10분마다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수질 오염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4일 나주시 다시면 영산강 살리기 2공구 죽산보 건설현장. 보 기둥을 건설하는 콘크리트 타설 공사가 본격화되는 등 장마철 전 공정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속도전이 펼쳐지고 있다. 아래는 죽산보 완공으로 달라질 영산강 죽산보 일대 모습(조감도).



“생태공간 탈바꿈, 관광자원 역할 톡톡히 할 것”

김선규 영산강살리기 2공구 감리단장

4일 나주시 다시면 영산강 살리기 2공구 죽산보 건설현장에서 만난 김선규 영산강살리기 2공구 사업 감리단장은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찬·반 논쟁과 관련,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당 후보가 제각각 목소리를 내면서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특히 “내년 말 사업이 완공되면 죽산보 주변이 친환경적인 생태 공간으로 완전히 바뀌어 지역민들



의 쉼터 및 관광자원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수질 오염·생태계 파괴 등을 걱정하는 지역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지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홍수를 예방하면서 수질 개

선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